

### 6·4 지방선거 1년 앞으로

# ‘安風 앞의 민주’... 광주·전남 1당 독점 깨지나

(안철수 바람)

#### ■ 변수·관전 포인트

내년 6월4일 치러질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향후 행보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안 의원의 행보가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경우 야권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민주당의 심장부이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

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정치지형의 지각변동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불안한 일당 독점=내년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독점 구도의 유지 여부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싸움을 했던 민주당의 독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뒷받침으로 여겨졌던 지역 민심은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

#### ‘무주공산’ 전남지사·‘정중동’ 광주시장 촉각

#### 안철수 독자세력화 행보 정치지형에 큰 변수

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안철수 ‘신당 창당’이라는 중요한 변수도 남아있어서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또 광역단체장 선거도 주목의 대상이다. 특히 박준영 전남지사의 ‘3선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지

사 선거가 그렇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주승용 의원이 이미 차기 도지사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 상태여서 두 의원 간의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조용한 분위기의 광주시장 선거도 관심사다. 당분간 강운태 광주시장

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강기정·이용섭·장병완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들의 도전도 주목된다.

이밖에 그동안 기초의회 선거에서 약진했던 진보정당의 ‘돌풍’ 여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 재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교조 출신 후보들의 경쟁이 주목된다. 장휘국 시교육감의 재선에 윤봉근·정희곤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

인다. 3명의 후보군이 모두 전교조 출신이긴 하지만,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변수도 많아=지방선거까지 1년이 남아 정국의 변동성이 높은 만큼 변수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 세력화 또한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안 의원의 향후 행보와 더불어 정계개편이 중대 변수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권의 교두보

로 삼을 신당 창당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에서 ‘안풍’ (安風·안철수 바람)이 다른 지역보다 거센다는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향후 행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 의원 측에서 광주·전남지역 중 한 곳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지방의원들 중에서도 안 의원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선과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민심의 지지기반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安보다 빨리” 민주 선거체제 조기 가동

#### 1년 앞두고 기획단 발족

#### 제도정비·인재발굴 ‘투트랙’

민주당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1년 앞둔 4일 지방선거기획단을 발족하고 지방선거 준비 체제 조기 가동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기획단을 띄웠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빠른 대응으로 독자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대결을 대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발족식을 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다. 당은 전날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10월 재·보선 기획단도 꾸렸다.

이러한 조기대응 배경에는 민주당이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낭패를 볼 경우 야권 주도권은 물론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를 공천을 결정과 같은 제도정비와 인재발굴 등 ‘투트랙’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정당원투표제를 통해 기존 제도정비·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유지

여부를 결정한 뒤 8월 안에 공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내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위원장 조경태)를 중심으로 공천개혁의 밑바탕이 될 상향식 공천안을 마련, 이 역시 정당원투표제로 당의 입장을 확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천제도부터 조기에 결정, 특정 계파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동시에 출마 대상자의 준비기간을 늘려 내실을 기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승조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지난 4년간의 민주당 지방정부의 업적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이는 총선과 대선 승리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각 시도당 기획단과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민주정책연구원과 공조에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위한 정치아카데미를 운영, 후보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단은 당내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의원)와 협의해 정치신인을 발굴할 계획이다. ‘새파수혈’의 성적표가 안 의원 측과의 경쟁에서 승패를 가릴 시금석이라는 인식에서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상향식 공천

방식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큰 인사들을 공천,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단속 강화

####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년 앞두고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전국 17개 시·도 지도과장 및 특별기동조사팀장을 대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열어 예방활동 강화 및 단속체제 정비를 주문했다.

선관위는 중점 단속할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방음해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지역주민 체육대회·관광행사 등의 금품 찬조 행위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비대납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선관위는 전화(☎1390)로 위법행위 신고·제보를 받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2014 지방선거기획단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화전당 전시·공연예술 총감독 선임... 개관 준비 활력

## 콘텐츠 구축 넘어야 할 산 아직 많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전시·공연예술 총감독이 4일 위촉돼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콘텐츠)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은 문화전당의 순환 여부를 좌우할 핵심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문화전당 전시예술감독에 이영철 전 아시아문화개발원장, 공연예술감독에 김성희 계열예술대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돌연 사임했던 프리 라이젠(61·Frie Leysen)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감독의 공백을 메우고 오는 2015년 개관할 문화전당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한다.

이 감독은 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 교류원·정보원·창조원·아시아문화원 전시업무, 김 감독은 아시아예술극장의 메가 브랜드 공연물 제작, 해외 초청공연 등 업무를 맡게된다.

두 감독에게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업무의 지표가 될 문화전당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다. 올초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마련한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종합계획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등 현재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들 감독은 향후 자신들과 호흡을 맞춰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할 큐레이터 등 전문인력을 선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공연부문에서는 지난해 프리 라이젠의 돌연 사퇴로 사실상 아시아예술극장의 실수가 상당기간 차질을 빚은 탓에 메가 브랜드 공연물 제작 일정이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물을 만드는 데는 최소 2~3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오는 2015년 개관에 맞춰 공연물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전당을 운용할 전담인력이 없다는 점은 구조적인 문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두 감독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현 아시아문화개발원 인력들을 운용할 계획이다. 문화전당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을 감안한 임시조치인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문화전당 전시·공연 책임자들이 위촉된 만큼 개관 준비 업무는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특별한 기회

특별한 기회

광주 MBC 에어드림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이루십시오



**박동산**  
前 광주 MBC 아나운서, 문화사업국장, 행사팀대 팀장교수



**양동아**  
前 부산 MBC 아나운서, 전 광주 MBC 아나운서



**황정숙**  
前 KBS 광주방송작가, 리포터, 전 KBS 광주방송총국 MC



**장문정**  
前 광주 MBC MC, 리포터, 전 광주교통방송 MC



**최승비**  
前 TBN 광주교통방송 MC, 리포터, 전 광주 MBC MC, 리포터




**최인수**  
前 TBN 광주교통방송 MC, 전 EBS 교육방송 리포터, 전 전남대 평생교육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사

**방송진행자 | 일반인 스피치 | 방수구성작가 | 디베이트(토론) 교사 | 대학생 취업 면접 | 힐링스피치 클럽**

교육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대여동, 한예종빌딩 3층) (주)일과 사람 / 전화: 062-234-0800 / 팩스: 062-234-0801 / 홈페이지: www.lnhac.com

## 빛의만평

- 김중두



‘父子錢’일세